

雲門

불기 2569년

봄호

통권 제171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궁궐 같은 운문사, 푸른 산, 맑은 바람 기운, 새 봄, 새 옷, 새 사람들. 매일 매일이 새 날입니다. 관세음보살 / 치문반 도현
- 다시는 오지 않을 치문 첫 철을 '감사함'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이 순간입니다. / 치문반 정혜
- 봄바람이 성큼 오는 줄도 모르고, 발 밑에 큰봄까지꽃 핀 줄도 모르고 바쁘지만,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야 하는지, 어떻게 뿌리내려야 하는지 똑똑히 알아가는 날들입니다. / 치문반 혜신
- 만났다 헤어짐이 반복인 삶 속에서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다! / 사집반 여연
- 3월의 불성은 어떤 모습일까. / 사집반 금모
- 사랑이는 봄바람은 새싹을 깨우고 따스한 햇살은 꽃망울을 틔우듯 새로운 봄의 기운이 우리를 깨우길. / 사교반 정건
- 매화꽃 피어나길 기다리던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매화꽃 피어났듯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일새 / 사교반 현소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다. 운문사 도랑에 매서운 겨울 건디고 피어난 운옹매처럼 인옥바라밀. 정진바라밀 / 화엄반 서현
- 사바세계. 참아야만 하는 세계. 매화의 그윽한 향기에도 인忍의 향기 있어라. / 화엄반 혜명
- 올 봄 치문꽃 활짝 피었네 / 화엄반 혜석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처음 발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진합니다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오씨烏氏문중 원보
08 교수논단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 ③ 원범
12 학인논단	사마타·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비교와 현대적 적용 ① 공림
16 외부기고	불광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간불교의 실천과 전망 혜호
20 수행의 두레박 하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진정
22 수행의 두레박 둘	주관적 견해를 버려라 도림
24 방부소감	자신만의 향이 나는 수행자가 되기를 해수
26 특별 탐방	백천문화재단 탐방기 자비가 여는 복덕福德의 문 도선
31 想	문수보살 승목
32 차례법문	내가 빛나는 별입니다 덕유
35 풍경소리	허공을 만납니다 해행
36 운문, 운문인	늘 봄처럼 새로워라 편집부
38 자유기고	은사 스님께 쓰는 편지 선일
40 이 한 권의 책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를 읽고 혜석
43 화랑동산	신증기도를 회향하며 - 사집의 봄 - 도윤
44 운문논평	기후 변화를 대하는 지혜 편집부
46 운문소식	
47 등불	불전사물佛殿四物 - 목어木魚



처음 발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진합시다

명성 / 운문사 회주



오고 감이 없다는 청정한 법계 한가운데서 투박한 매화나무의 꽃을 보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느끼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치문반 스님 환영합니다. 대중 스님들도 반갑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래에 나는 ‘복福과 덕德’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함께 사유해봤으면 합니다.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할까요? 수레를 때려야 할까요? 또 복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은 스스로 짓고 받는 것이지요?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를 들고 감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따야 합니다.

이곳 운문사는 처음 발심한 수행자에게 스스로 복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량입니다. 들려오는 말을 빌자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종각을 들어서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비구니 스님 도량답게 정갈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이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 덕분에 늘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도량정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학인 스님들의 수행하는 길에 스스로 짓는 무량한 복전福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천수경』에도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천룡강차지”라고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량은 그대로 현상계의 도량을 말하기도 하지만 순간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도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여기서 주인의 삶을 산다면’ 삼보님과 천룡팔부가 늘 수행자 곁을 여의지 않고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보살님이 함께하는 도량에서는 늘 처음 발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화두로 삼고 살겠다는 다짐, 즉 보리심 또는 보살심입니다. 어두운 마음[無明]을 깨트리고 본래 갖춰진 부처님 마음을 깨우치겠다는 다짐과 대승 보살의 네 가지 서원의 실천[四弘誓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심의 학인들에게 당부하신 보조 스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뜻과 절개를 굳게 하고 자신을 꾸짖어 계율리하지 말며, 그른 줄을 알면 올바른으로 옮겨 뉘우쳐 고치고 부드럽게 조화되어야 한다. 부지런히 하면 성찰하는 힘이 점점 깊어지고, 단련하는 수행의 길도 맑아지리라. 오래 오래하면 저절로 정혜定慧는 원만하게 밝아서 스스로 마음의 성품을 보고, 허깨비 같은 자비와 지혜로써 중생을 제도하면 인천의 큰 복전이 될 것이니 부지런히 힘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결과만 중시하여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는 매사에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문사에서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서 한 치도 모자람이 없고, 오늘 처음 한생각이 ‘동시구족상응同時具足相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확실하게 믿고 반조反照하면, 진흙 속에 뿌리내린 연꽃처럼 관음의 천수천안千手千眼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수행자의 삶이 법희충만法喜充滿한 최상의 길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아직은 어렵다고 느낄 초심의 수행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은 그 아픔 앞에 마음을 모아 참회 기도를 올립니다. 🙏

오씨烏氏문중

원묘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봄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일찍 들어오니 어디선가 까마귀 소리, 꾸우 꾸우웁, 까 까악, 까아악 울린다. “한 철 잘 살아봅시다.” 아침 인사같이 친근히 들린다.

10여 년 전쯤 만해도 운문사에 까마귀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부쩍 많아진 것 같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시베리아 혹은 몽골초원에서 떠돌다가 비자가 통과 되었을까? 아니면 가까운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에서 방문하는 것일까? 때를 지어와서, 도랑 위 아래로 배회하며, 감찰한다. 여기서 이 무리의 격을 높여 오씨烏氏문중이라 하자.

이 문중과는 호거산이라는 한 공간에 있지만,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주름잡는 능력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갑게 만지고 쓰다듬으며 먹이 줄 수 있는 친밀한 거리에 있지는 않다. 그냥 떼면떼면한 사이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동이 일찍 트는 여름철, 아침 발우공양시간이다.

아침 6시 10분 전, 각 처소에 있던 대중 스님들이 큰 방 청풍료에 공양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들도 만만치 않은 크기의 날개를 펼치며 시동을 건다. “자, 시간 됐다. 가자, 가자.” 하며 퍼득인다. 삼장원 지붕 위에, 선열당, 은행나무, 회나무 위에, 옹기 종기 일문권속들이 청풍료 중심으로 조를 짜서 좌정을 한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왁자지껄 점호 출석을 부르고 나서 조회를 하는지, 지난 밤의 개인적 가정사로 수다를 떠는지, 지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토론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관찰하려는 주장의 강도가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괴상한 톤의 고성방가가 풍랑 이는 파도처럼 도랑에 철렁철렁 깔린다.

원 듯한 소리로 ‘가오 가오, 까오 까오, 까악까악, (짜내는 듯한)아악아악’ 이 섞여 있으며, ‘큭큭, 깉깉, 까아악’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돌이의 악보를 써낸다. 듣기 거부하다. 공양도 하기 전에 체기가 돌다 감성을 뒤엎는다. 검은 두루마기 걸친 저승사자가 문 안을 엿보시

나? 으흐흐! 섬찔해.

까마귀의 지능은 6~7세 아이 정도로, 돌고래나 침팬지와 동급이며, 도구 제작 능력과 문제 해결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딱딱한 호두를 바위에 떨어뜨려 까먹는다는 것은 옛말이고, 요즘은 푸른신호등에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사람에게 물이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떠 있다. 그들의 학습능력이 환경에 따라 진화 향상되고 있음을 알리는 소식이다.

여기서 슬슬 번뇌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오씨문중은 오랜 세월 운문사 대중의 일원으로 시간을 함께했는데, 공양시간에는 묵언한다는 전통을 학습하지 못했는가? 신참 습의가 덜 되었나?

대중 스님들은 고요히 첫 죽비소리를 기다린다. “딱! 딱! 딱!” 간결한 소리에 진지가 시작되고, 송늑을 돌리고, 발우를 마무리 지으며 앞에 있던 찬상들을 마루에 내어다 놓는다. 그러면 드디어 이들에게 찬스가 온 것이다. 만만치 않은 날개를 펼치며 “와, 치즈다!” 모여들어 찬상마다 남아 있는 치즈만을 물고 제자리로 날아오른다. 순식간이다.

실수 없이 잼싸게 물고 올라 맛을 감상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 고소하네. 김치, 시금치 나물에 비할 게 아니야.” 하며 탄성을 지르는 것이 보인다. 언제부터 치즈 맛을 보았는지...

운문사에서는 지구환경을 상기하는 날이 있다. 매주 수요일 비닐제로데이(vinyl-zero-day)이다. 따라서 이날은 비닐에 싸인 치즈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씨 일가의 불만을 상상해 보라! “오늘은 왜! 왜! 치즈가 없어! 껍! 껍! 껍!” 성난 거위 소리는 저리 가라이다. 범종루의 대중도 울릴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환경 염려에 자비의 옷은 벗어 버린 야박한 인심이었던 것은 아닌가? 단 몇 장이라도 준비해 놓을 것을...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오씨문중과 함께하는 20~30분간의 발우공양 시간이다.

하루는 아침에 무심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치즈를 물고 지붕으로 올라간 어미는 기다리고 있던 어린 새끼들에게 정성스레 껍질을 까서, 골고루 치즈를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어머나! 저 장면 좀 봐! 까마귀는 자신을 키워 준 부모한테도 효심이 지극해서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사자성어를 남겼는데, 자식도 금지옥엽金枝玉葉, 애지중지愛之重之 돌보는구나! 비록 형상이 다르고, 그윽한 뼈꾸기 소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행동 윤리를 보여주는 선지식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전설, 고사성어故事成語에서 까마귀를 인간의 길흉사를 알려 주는 신령스러운 전령사로 여겼던 것 같다.

산해경에서는 세발까마귀를 태양 속에 살며 시간의 흐름을 고르게 분배하여 생명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삼족오三足鳥로 의미를 부여했고, 또한 삼국유사에는 까마귀가 신라 소지왕에게 암살 시도를 미리 일러주었다는 사금갑射琴匣 설화도 있으며, 친숙한 오작교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함께 발우공양 하는 운문사 오씨문중은 새로운 기술, AI 시대 어떤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어떠한 화두를 그토록 울부짖는 것일까? ❷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③

원범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차

I. 서언

II. 박하담의 [운문구곡가]

1.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
2. 물아상득物我相得의 소요逍遙

III. 손기수의 [운문구곡]

1. 음영성정吟詠性情의 산수시
2. 유유悠悠의 청취淸趣

IV. 결어

2. 유유悠悠의 청취淸趣

손기수는 「운문구곡」에서 유람하는 목적이 아름답고 좋은 경관을 다 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물을 보고 일어난 흥을 읊은 것이라고 「무이도가」를 해석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작시한 작자의 미의식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손기수의 시에는 운문산에 노닐며 사찰에서 승려들과의 교유 등을 읊은 것이 있다. 그의 「내원암에 들어가서」라는 시에는 “몇 줄 시구로 회포를 토론하고 스님께 법문 강의 청해보네.”¹⁾라고 읊고 있어 자신의 심회를 시를 통해 표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 「유두일에 벗들과 함화암에서 노닐며」라는 시에서 “이러한 청정한 취미는 신선과 놀기에 족하다.”²⁾라고 하는 등 그의 유람하는 정취는 청정한 맛이 주를 이루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천문동을 읊은 시에서는 “천문동에 이르니 유유하게 만물 밖에 노니는 마음”이라고 하여 유유한 물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의 시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정취는 유유한 물외의 담담하고 맑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문구곡」에도 이러한 정취가 흐르고 있다.

손기수는 출발에서부터 행로에서 일어나는 풍광과 감회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곡은 앞의 두 구에서는 서경을 그려내고 뒤의 두 구는 앞의 두 구가 단순한 서경의 묘사로 끝나지 않게 성정을 담아내기 위한 장치역할을 한다. 구곡을 유람하는 손기수의 흥은 우선 한가로움(閑)으로 시작된다.

二曲移行強問羊 2곡이라, 걸음을 옮겨 굳이 양바위를 물으니
崖懸峽束路蒼茫 깎아지른 절벽 좁디좁아 길 아득하네.
更拭昏眸閑坐久 침침한 눈 비비고 한가로이 오래 앉았더니

雙巖危立水聲長 두 개 바위 우뚝 서 있는데 물소리 길기도
하네.

忽看人到雙飛去 사람이 오는 것 알아차리고 푸드덕 날아오르니
烟水茫茫向五湖 물안개 아득한데 오호 향해 가는구나.

위의 시 제3구에서는 인물기흥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취를 한閒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그의 정서가 한가롭기 때문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바위가 우뚝해 보이고 물소리가 넉넉하게 들리기도 한 것이다. 물소리에 매료되어 있는 작자의 모습이 우뚝 솟은 바위와 함께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한가로움의 정취는 유람에서 오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로움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한가로움은 유람하는 길이 쉽지 않은 데서 오는 긴장감을 ‘아득함[滄茫]’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 독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여유로움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우뚝 솟은 바위와 긴 물소리는 작자의 어떠한 목적도 없이 앉아 있는 적정한 상태를 보여주며 한가로움의 정서를 배가시켜 주는 장치로 쓰였다. 이렇게 한가로움에서 시작되는 작자의 정서가 내내 한가로운 것은 아니다. 3곡에서는 정서가 ‘쓸쓸함[淒淒]’으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소리 듣고자 하면 찾는 곳에서 미혹해지기 때문으로 이 쓸쓸함은 헛된 명성에 부침한 자신의 내면세계의 결과물인 것이다. 4곡에서는 시상이 다시 한閒으로 옮겨진다.

四曲閑適泛泛鳧 4곡이라, 한가롭게 물결 따라 떠다니는 오리
鏡中清水洽歡娛 거울 속의 맑은 물 마셔보니 좋아라.

4곡의 정취는 ‘환희로움[歡娛]’이다. 그 이유는 맑은 물[清水]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 환희로움은 제1구의 거울 속 같은 맑은 물에 범범히 떠다니는 오리들에게 이입되어 있다가 결국 제4구에서 오리들에게 실리어 오호를 날아간다. 바로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작자의 유유한 마음이다. 이러한 유유한 마음은 5곡의 ‘흥이 한가롭기까지 하다[興悠]’고 한 서정과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가롭고 넉넉한 흥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제6곡에서 드러난다.

六曲逶迤上若耶 6곡이라, 구불구불 약아게 올라가니
澄流正色本無瑕 맑게 흐르는 순정한 빛, 본래 티끌이 없구나.
欣然一洗塵間累 기쁘게 한번 세속의 허물 씻었더니
活勢潏潏浪花花 활발하게 반짝이는 맑은 물결 꽃잎을 짓네

약아계를 읊은 제6곡에서는 ‘기쁘게[欣然]’ 맑고 맑은[潏潏] 풍경을 감상하는 작자의 마음을 읊고 있다. 제6곡 전체에 흐르는 미의식이 「운문구곡」의 전체의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순정한 빛[正色]과 티끌없음[無瑕]의 ‘맑고[澄]’ 담박함[潏]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기수는 약아계의 물빛을 순정한 빛[正色]과 티끌없음[無瑕]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세속의 허물을 씻었기 때문이다.

1) 孫杞秀, 「入內院庵」, 『雲浦世稿』, 『雲門寺誌』, 394쪽 “數聯詩句論懷地 且許闍梨講法文”

2) 孫杞秀, 「流頭日與諸益遊含花庵」, 『雲浦世稿』, 『雲門寺誌』, 395쪽 “一般清趣足仙遊”

이는 곧 작자 자신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다. 손기수의 약야계를 읊은 또 다른 작품에서는 “잔잔한 물결은 잉어의 눈 껍적거림이요 꽃술은 별 허리에서 파르르 떨리네.”³⁾라고 그의 시상이 6곡의 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두는 바로 순정한 자신의 티끌 없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자연 관조의 미의식은 바라보는 인물의 사유체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마련으로 그 미의식은 “담담한 선미로 속세 티끌 씻어내는”⁴⁾ 그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정은 제7곡의 천연天然스러움으로 드러나며 9곡에서는 ‘툭 트이는[豁軒]’ 심사로 이어진다.

이상 손기수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의 시는 각 곡을 유람하는 동안 보고 들은 풍광들에 의해 자신의 변화하는 심경을 잘 드러내었으며 이때의 미의식은 순정하고 허물이 씻겨진 한가로운 물외인의 맑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IV. 결어

위의 두 「운문구곡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박하담과 손기수는 운문이라는 같은 공간을 유람하며 작시한 「운문구곡가」를 남겼다. 이는 「무이도가」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두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하담의 「운문구곡가」는 운문이라는 산수에서 구곡을 직접 경영하여 「무이도가」를 차운한 최초의 작품이며 손기수의 작품은 박하담의 「운문구곡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는 두 작품을 소개하고 분석을 통해 이들 작품에 드러난 작자의 시적 이념과 미의식을 파악하였다.

박하담이 고향인 청도에서 소요당을 짓고 주자의 「무이도가」를 본떠 운문구곡을 경영한 것은

주자의 사상과 학문 그리고 문학까지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는 운문구곡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읊으면서 양성養性과 생생生生의 이법을 성취하고 있는 내면세계를 보여주었다. 또 산수 간을 유람하는 것은 심성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각 곡에서 표현해내었다. 그러므로 주자의 「무이도가」를 전범으로 작시한 박하담의 시적 이념은 도학에 나아가는 차제를 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양상은 16세기 사람들이 입도차제의 조도시로 해석하고 수용한 초기 작품의 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조도시로 바라본 시적 이념을 담아내기 위해 작자는 「무이도가」와 동운同韻을 사용하였으며, 적절한 고사를 인용하여 운문구곡이 유학의 도를 연마하는 이상적인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비록 주자의 무이구곡을 흠모하여 지었다 하더라도 조선의 산수간에서 유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양상은 앞의 두 구에서는 자연경관을 읊고 뒤의 두 구에서는 도학적 정서를 토로하는 전경후정前景後情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작자는 경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신의 흥취를 우의하여 드러낸 특징이 있다. 그의 흥취는 맑고 청량한 한가로움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한가로움은 만물과 내가 서로 뜻을 얻은 경지에서 노니는 물아상득物我相得의 소요逍遙에서 얻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소요하는 박하담의 시선은 경물 하나하나에 천리天理를 담아내고 있어 마지막 곡에서 도달한 별천지인 도원은 도가적 이상향의 세계가 아니라 주자의 학문적 성취에서 일궈낸 경지였음을 알렸다.

한편 손기수의 작품은 박하담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손기수의 작품인 「운문구곡」을 인물기흥의 성정을 읊은 산수시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그

가 구곡을 설정하여 구곡시를 지은 것은 「무이도가」를 의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손기수는 주자의 운을 차운하지 않고 개인적 감성을 독자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내용 또한 박하담의 작품에 비하여 도학자적인 품격에서 벗어나 도학자와의 거리를 둔 시인의 감성으로 경물을 묘사한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성정을 읊고 있으며 자신의 한가로운 흥취를 표현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그는 도학자의 심성 도야를 위한 목적으로 유람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난 경관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작가의 감성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 심성 도야를 이루려고 하거나, 그것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거나, 천리天理를 찾아내고자 하는 흔적이 없다. 그의 시는 조선이라는 운문의 자연물과 자연경관을 보기 위한 여정, 그리고 작자의 마음 상태가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작자의 주관적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손기수의 작품은 주자의 사상과 그 개연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손기수의 의식 세계는 주자학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에도 열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손기수 또한 9곡의 천문동을 별천지로 상정하였는데 그에게 있어 별천지는 학문적 성취의 장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물외한인物外間人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광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1곡에서 자연 풍광을 다 눈에 담고 싶다고 읊었듯 애초에 별천지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다. 8곡까

지의 풍경과는 다른 풍광을 마주하고 이곳이야말로 별천지일 것이며 최고의 볼거리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상당한 차운시들이 인물기흥의 성정을 읊은 산수시로 구현된 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상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드러난 시적 이념과 미의식은 선조들의 산수 간을 바라보고 유람하였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자연생태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도 한 운문산 일대를 박하담이 구곡을 경영하였던 운문구곡과 연계하여 어떻게 설정해 낼 것이며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운문구곡에 담긴 정신문화와 유람문화의 활성화 방안과 논의는 이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3) 孫杞秀, 「若耶溪」, 『雲浦世稿』, 『雲門寺誌』, 395쪽 “春日雲門寺 若耶溪上橋 連漪明鯉目 花藥動蜂腰 煩囑放吟嘯 散慮落逍遙 笑看烟禽回 山童夕採樵”

4) 孫杞秀, 「又二絶」, 『雲浦世稿』, 『雲門寺誌』, 395쪽 “淡然仙味滌塵埃”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비교와 현대적 적용 ①

공림 / 대교과(4학년)

목 차

I. 서론

II. 사마타 ·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비교

1. 도표로 보는 『능엄경』의 25원통
2. 『서장』을 중심으로 본 간화선 수행
3.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유사성과 차이점
4.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 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불교 수행은 시대와 지역,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 중심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은 사마타(Samatha, 止)와 위빠사나(Vipassanā, 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심리적 고요함과 존재에 대한 통찰을 동시에 추구해 온 수행체계이며, 현대 명상 이론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불교, 특히 선불교 전통에서 중시되어 온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라는 간결한 언어적 장치를 통해 의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깊이 참구함으로써 언어와 논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수행 방식이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감각, 의식,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각각 구분되는 수행법으로, 전통 강원(山院)의 사교과에서 배우는 주요 경전들인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등에서 중점적

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능엄경』 제5권에 수록된 25원통二五圓通의 가르침은 6진塵 · 6근根 · 6식識 · 7대大 각각의 25가지 방편을 따라 성문과 보살이 각자의 수행력과 수승한 공능功能을 통해 원통圓通을 성취한 것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실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반해 간화선은 송대 대혜종고선사大慧宗杲禪師에 의해 수행 체계로 정립되었으며, 화두에 대한 절실한 의심(疑情)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이론적 사유를 넘어선 직관적 자각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대인 또한 자신의 수행 인연과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수행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오늘날 명상은 종교적 실천을 넘어 심리 치유, 창의성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교 수행법의 현대적 전환 가능성 또한

주목받고 있다. 본고本考에서는 『능엄경』의 25원통과 『서장』을 주요 전거로 삼아,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 수행 체계의 철학적 배경과 수행 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실천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비교

1. 도표로 보는 『능엄경』의 25원통

『능엄경』 제5권에 나타나는 25원통을 통해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상수제자上首弟子에 해당하는 25명의 수행자들이 각각의 수행법을 통해 원통本性을 증득한 사례가 소개되며, 이들은 모두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기반으로 삼아 깨달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전거는 수행자가 ‘자기 자신으로서의 지남指南’을 확립하는 데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사유가 깊어질수록 본성本性에 근접할 수 있다는 수행 원리를 체험하게 한다.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수행이며, 위빠사나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수행이다.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 수행을 병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행 체계로 간주되었다.²⁾

대승경전인 『능엄경』의 구성에 따르면, 수행자는 먼저 사마타를 통해 삼마제三摩提에 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나禪那에 이르게 된다. 본고에서는 6진·6근·6식·7대를 합한 25가지의 수행 사례를 중심으로, 원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마타를 바탕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집중止과 통찰觀 중 어느 측면이 더 강조되었는지를 기준하여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으로 가려서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가 없이 배우는 확인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분류한 것임을 밝혀둔다.

〈도표 1〉

번호	수행자	수행 대상	사마타 / 위빠사나 중심	이유	핵심내용
1	교진여등 오비구 憍陳如等五比丘	성진 聲塵	사마타	음성을 듣고 집중하여 정에 든 수행	부처님의 사성제四聖諦법문을 듣고 원통圓通성취.
2	우파니사타 優波尼沙陀	색진 色塵	사마타	묘색妙色이 밀밀密密 원만함을 집중함	부정관不淨觀 수행 중 색상을 관조하여 원통성취.
3	향엄동자 香嚴童子	향진 香塵	위빠사나	묘향妙香이 밀밀 원만함을 관찰함	침수향 향기가 오고 가는 곳이 없음을 통해 원통성취.
4	약왕·약상보살 藥王藥上二菩薩	미진 味塵	위빠사나	맛의 인[味因]에 대한 미세한 분석과 관찰	사바세계의 초목금석을 맛봄을 통해 원통성취.

1) 『능엄경楞嚴經』 권5,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반라밀제 한역, 불광출판사, 2008.

2) 오철우,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삼매 수행체계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번호	수행자	수행 대상	사마타 / 위빠사나 중심	이 유	핵심내용
5	발타바라등 跋陀婆羅等	촉진 觸塵	사마타	수인水因을 통해 무소유無所有를 얻게 됨	물이 몸에 닿는 감촉[觸因]을 통해 몸과 마음의 쾌적함을 느끼고 원통성취.
6	마하가섭등 摩訶迦葉等	법진 法塵	위빠사나	두타행頭陀行을 통한 묘법妙法으로 번뇌 소멸	공적空空的한 법의 인[法因]으로 원통성취.
7	아나올타등 阿那律陀等	안근 眼根	위빠사나	세존께서 낙견조명樂見照明의 금강삼매를 가르치심	시력을 잃은 뒤 내면의 정견精見을 통해 근원根元을 성취.
8	주리반특가 周利槃特伽	비근 鼻根	사마타	출입식出入息의 지속적 관찰과 집중	출입식을 관찰하여 생주이멸生住異滅하는 찰나성에서 대무애를 성취.
9	교범바제 驕梵鉢提	설근 舌根	위빠사나	우사병이 있는 교범바제에게 심지心地법문을 개시함	맛을 돌이켜 신령스럽게 아는 법안法眼을 성취.
10	필릉가바차 畢陵伽婆蹉	신근 身根	위빠사나	걸식 중 가시에 찔려 심한 통증을 느낌을 관함	아픔의 공성空性を 관하여 깨달음을 순일하게 지키고 몸을 버리는 것으로 성취.
11	수보리 須菩提	의근 意根	위빠사나	공적空寂을 관하여 공의 성품을 증득함	모든 상相이 상이 아니며 상이라는 생각조차 다하여 유위법有爲法을 돌이켜 시비가 끊어짐.
12	사리불 舍利弗	안식 眼識	위빠사나	견성見性的 철학적 지관 통찰	심견心見의 지혜 광명을 발하여 지견知見 성취.
13	보현보살 普賢菩薩	이식 耳識	위빠사나	보현행을 닦는 것으로 이 름을 얻음	마음으로 듣는 심문心聞이 자유 자재하여 중생을 위한 보살행으로 원통성취.
14	손타라난타 孫陀羅難陀	비식 鼻識	위빠사나	출입식이 청정해져서 지혜 광명이 발함	코 끝의 흰 기운[鼻端白]인 호흡 관찰을 통해 원통성취.
15	부루나미다라니자 富樓那彌多羅尼子	설식 舌識	사마타	변재무애辯才無礙로 고통과 공空的 실상을 통달함	대변재의 법륜[法音]을 굴려 사자후를 함으로써 아라한 성취.
16	우파리 優波離	신식 身識	사마타	계율의 기강을 세우는 것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속함	지계로써 몸과 마음의 청정성을 유지하여 원통성취.
17	대목건련 大目犍連	의식 意識	위빠사나	신통력으로 흐린 물을 맑게 가라앉힘	신통력의 자유자재로 지혜광명을 드러내어 청정을 유지함.
18	오추슬마 烏芻瑟摩	화대 火大	위빠사나	육신의 음욕의 뜨거운 기운을 관하여 지혜의 불을 이룸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음욕의 번뇌가 소멸하여 큰 보배의 지혜불꽃이 일어남.
19	지지보살 持地菩薩	지대 地大	위빠사나	신계이진身界二塵이 본래 청정한 여래장에서 생긴 것을 관찰함.	고난에 처한 중생을 연민심으로 구제하고 법신과 중생계가 둘이 아님을 증득함.

번호	수행자	수행 대상	사마타 / 위빠사나 중심	이 유	핵심내용
20	월광동자 月光童子	수대 水大	사마타	수성水性관찰과 물의 유동성에 대한 집중.	물의 성품이 한결같이 유통하는 것을 관해서 무생법인無生法忍 증득.
21	유리광법왕자 瑠璃光法王子	풍대 風大	위빠사나	바람의 힘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관찰.	시방의 불덕佛德에 합하고 묘심을 전하는 것으로 원통성취.
22	허공장보살 虛空藏菩薩	공대 空大	위빠사나	대원경大圓鏡을 관하여 대수순大隨順을 증득.	허공이 의지할 곳 없고 망상으로 생멸하는 것이 불국佛國과 다름이 없음을 관하여 무생법인 증득.
23	미륵보살 彌勒菩薩	식대 識大	위빠사나	유식 삼매, 마음의 작용 분석	시방이 오직 식識임을 관하여 식심이 원명하여 원성실성에 들어감으로 무생법인을 증득.
24	대세지보살 大勢至菩薩	근대 根大	사마타	염불을 통하여 육근을 단속하여 깨끗한 생각이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인지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었고 사바세계에서도 염불을 통하여 정토에 들어가게 함.
25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이근원통 耳根圓通	위빠사나	부처님께서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 수행으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심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본성을 관함으로써 원통성취.

위와 같이 도표를 통하여 각각의 육진 원통을 살펴보았다. 6진원통의 첫 번째인 교진나는 부처님의 사성제법문을 듣고 원통을 성취한 것이다. 다음, 6근원통에서는 아나울타의 안근원통眼根圓通으로 세존께서 정진하다가 눈이 먼 아나울에게 마음으로 즐거이 밝게 비추어 보는 금강삼매를 가르쳐서 정견精見의 근원根元을 성취하게 한 것이다. 다음은 열두 번째 원통으로 육식六識에 해당하는 사리불의 안식원통眼識圓通에서는 심견心見의 지혜 광명을 발하여 견성성불의 철학적 지관을 통찰하게 하였다. 다음은 칠대七大 원통에서 열여덟 번째, 오추슬마는 화대원통火大圓通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음욕의 번뇌가 소멸하여 큰 보배의 지혜불꽃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물다섯 번째, 관세

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수행으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の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본성을 관함’으로써 원통을 성취하였다. 이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 그를 원통대사圓通大士 또는 원통존圓通尊이라고 부른다.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할 때, 25원통마다 모두 도道에 들어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지금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이근이 예리해서 귀[耳]로 듣기에 마땅해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이근을 우선시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불광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간불교의 실천과 전망

혜호 / 서울 불광산사



불광산佛光山은 대만에서 시작되어 인간불교人間佛敎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적 불교 사찰입니다. 창건주 성운星雲대사(1927~2023)께서는 깊은 교학, 율학, 선학의 경험과 넓은 세계관, 자비심을 바탕으로 불법을 사찰에서 사회로, 경전에서 생활로, 신앙에서 교육과 문화로 확장하며 현대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불광산이 창립된 지 반세기를 넘은 지금, 그 지난 발자취와 성운대사의 말씀을 돌아보며 불법의 등불을 계속 밝혀 나아가기 위한 불광산의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불광산의 과거 - 교육, 문화에서부터 시작

불광산은 1967년, 성운대사께서 대만 가오슝(高雄) 다수(大樹)의 황무지에 사찰을 창건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사는 “불법은 현대적 교육을 필요로 하며, 불교는 현대화된 포교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이상을 품고 제자들과 함께 한 손 한 손으로 도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믿음과 원력은 충분했습니다.

불광산은 창립부터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 불법을 전하며, 자선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수행으로



혜호 스님

99년 대만 불광산사로 출가하여
2004년 호주 남천사에서 구족계 수계.
이후 불광산 도감원 서기, 총무팀장,
불광산 총림학원 강사, 학무주임,
불광산 사무감원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서울 불광산사 주지.

마음을 정화한다[以教育培養人才，以文化弘揚佛法，以慈善福利社會，以共修淨化人心]'는 네 가지 중지를 세우고, 특히 승가 교육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불광산은 출가, 재가 모든 사부대중을 위한 동방불교학원東方佛敎學院으로 시작해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성운대사께서는 “불교는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은 단지 기복과 제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 문화관, 전시관 등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발전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광산은 대만 최대 규모의 도량으로 성장하였고, 미국 서래사를 비롯해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 해외 분별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도량은 단지 포교의 거점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한 문화 교류와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2. 불광산의 현재 - 세계로 뻗어가는 인간불교

오늘날 불광산은 전 세계 각국에 300여 개의 사찰과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단일사찰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가인 조직인 국제불광회 회원은 160여 개국에 퍼져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교단체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승가교육, 조직개편, 문화출판, 사회자선 등을 통해 이루어낸 현대 불교의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현재 불광산의 승가교육기관인 총림학원叢林學院은 전통적인 총림 제도를 따르면서도 현대 지식을 함께 중시합니다. 학생들은 교리와 불교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교활동에 필요한 사회 봉사, 국제교류, 시설관리,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받은 청년 인재들은 세계 각국에서 다국어로 포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광산이 전 세계 각국에 사찰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50여 년간 총림학원에서 배출한 많은 불교인재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불광산은 세계 유일의 불교계 일간지인 『인간복보』 등을 발간하고 방송국, 출판사, 미술관 등을 설립하여 문화, 예술, 학술을 통해 불법을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성운대사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고, 395권의 『성운대사 전집』은 불교 교리, 수행, 역사,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간불교 사상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선 활동에서 불광산은 노인요양원, 고아원, 재활용품교환센터 등을 운영하며 평상시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광산은 재난구호활동에 더 강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국가기관에서 구호물자가 빠른 시간에 준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의에서 대통령이 불광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로 불광산은 재난구호활동에 있어서는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때는 사부대중들이 모두 함께 하룻밤 사이에 60톤이 넘는 물자를 준비해 정부기관마저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필리핀 등 주변국가에 태풍구호물자를 보낼 때는 정부에서 먼저 요청하여 군수송기로 물자운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광산은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전통민속 신앙단체와 교류하며 종교포럼, 신명연의회神明聯誼會 등을 주관하여 종교 평화와 인류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연의회는 매년 12월 25일 불광산 불타기념관에서 열리며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3. 불광산의 미래 -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원력

성운대사께서는 “불광산은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이루는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2023년에 열반하셨지만, 큰스님께서 생전에 남긴 제도와 원력을 바탕으로 모든 불광제자들은 계속해서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운대사께서 미래의 불광산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음악, 학술, 정보화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젊은 불교 인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지화, 국제화, 공익화, 예술문화화 등의 발전을 주목하라 하시며, ‘전통과 현대의 결합, 승려와 신도의 공유, 실천과 지혜의 균형, 불교와 예술의 통합’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미래는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광산은 온라인 포교 플랫폼, 다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불법의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불광산은 ‘클라우드 도량’, ‘온라인 불학원’ 등을 운영하며, 불자들이 어디에서나 수행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술을 경전 및 성운대사 저서의 번역 등과 같은 포교활동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단계이지만 법문, 강연의 실시간 통역, 자막 생성 등을 실제 포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광산의 예술, 체육 참여는 사회에 많은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보살님들로 이루어진 불광옹원단은 ‘세계최고령 치어리더’ 라며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불자들은 인생을 젊고 쾌활하게 산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



에서 현지 천주교인들로 이루어진 불교뮤지컬 공연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뮤지컬을 전 세계를 순회하며 100회 이상 공연을 하였습니다. 불광대학, 남화대학, 보문중학교 등의 스포츠 팀을 통해 불교와 체육계의 많은 교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농구, 야구팀 등이 훌륭한 성적을 내면서 불교의 수행법과 체육훈련의 결합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지화와 국제화는 불광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미래의 포교 인재는 계·정·혜 등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소통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운대사께서는 미래 불광산의 모든 해외 도량은 모두 현지인이 주지를 하는 현지화된 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필자가 서울 불광산사의 주지로 발령 받은 것은 불광산 도량 최초의, 중국인이 아닌 현지인

주지로 불광산의 국제화, 현지화 포교의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불광산은 이러한 목표로 언어 교육과 국제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젊은 수행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전법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사회 양극화, 전쟁, 기술 윤리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은 불교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불광산과 불광회는 ‘환경보호와 마음보호’라는 구호 아래 세상에 행복과 희망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운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佛說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人要的],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것[淨化的], 선하고 아름다운 것[善美的], 이 세상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불교’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 전통과 현대의 융합

성운대사께서는 평생 ‘삼호三好·사급四給’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며, 희망을 주고, 편의를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성운대사께서는 불법의 실천을 근본으로, 신도들의 삶을 중심에 두며, 세계 평화를 원력으로 삼아 동서고금을 연결하는 현대 불교의 이상을 구현하셨습니다.

불광산에서 보는 미래는 단지 사찰 하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인간불교, 더 나아가 불교 전체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잊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모두를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부처님의 광명은 삼천세계를 비추고 불법의 물은 오대주를 흐르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진정 / 사교과(3학년)



삽화 3학년 명주

“진정 스님, 이제 사집반을 마치게 되면서 올
한해 어떤 걸 느끼게 되었나요?”

매년 마지막 학기를 마칠 때쯤이면 강사 스님께
서 물으시는 질문이다.

운문사에서 행자, 치문, 사집의 시간을 보내며 내가 얼마나 변화하였고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행자 때는 발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욕이 앞섰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려 했다. 그러다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나서지 말아야 할 순간들까지 나서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들이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행동들이 출가 행자로서 앞장선다는 마음가짐이었기에 원주 스님이나 별좌 스님께 걱정을 들을 때면 서운하기만 하였다. 인턴이 회사를 위한다며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을 하고는 혼이 난 후에 서운하게 느끼는 것과 같았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무명이 벗겨지듯 모든 일을 내가 다 하겠다던 욕심이 하나하나 벗겨지며 주변의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원주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구나. 나의 선의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 남의 말을 듣기 보다는 내가 무조건 옳다던 생각들이 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치문반에 입학한 후에도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 상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 스님으로서의 습의를 익혀나가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나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습관들이 자꾸만 다른 스님들과 부딪히게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왜 모두가 독방을 쓰고 따로 따로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대중이 모여 함께 생활하게 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대중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라셨을까? 도반들과 함께 생활하며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은 수행을 통해 다져지기 보다는 원망하는 마음만 앞서나갔다.

이러한 중에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물으며 강원생활의 의미를 되새겨 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 상황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와 부딪히지 않던 도반들도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다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아상我相이 깨어져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스웨덴 스님 비욤 나티코 린데블라드(Bjorn Natthiko Lindeblad)는 철야정진을 하던 날 주지 스님 아잔 자야사로(Ajahn Jayasaro)로부터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진심으로 세 번만 되뇌라는 주문을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이다. 그러면 근심이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노력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입장이 옳다는 상相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의 시선이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닌가?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타인의 말과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법이지 않은가? 이런 물음들이 자꾸만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와 나에게 묻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내가 옳다는 상相, 내가 이해받아야 한다는 상相,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며 나와 남을 나누고 나에 대한 상相을 견고히 한다면 그것은 수행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상相을 내지 않아야 타인의 의견에 자연스레 수순할 수 있고 화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연결된 존재이고 나의 행동이나 태도는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의 상相을 내려놓고 타인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행동한다면 보다 지혜로운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수업 시간 때 강사 스님께 들었던 말이 있다.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콩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그대로 빠져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강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예불을 보고 소임을 살며 스님으로서의 습을 익혀나가는 일들이 의미없게 느껴질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단단하게만 느껴지는 상相들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 속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붓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나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성숙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물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

주관적 견해를 버려라

도림 / 사집과(2학년)

코로나로 생활이 제한이 되던 어느 날 휴식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였고 그곳에 계신 스님께서 “출가를 하면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1년에 한 번 부처님오신날 절에 다녔지만, 제가 다닌 곳이 ‘비구니회관’ 인 것도, ‘비구니’ 라는 것이 성별이 여성인 스님을 뜻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불교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출가라는 것은 상상도 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스님의 한마디에 바로 출가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겠다’ 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화_2학년 도림

출가를 결심한 후 주변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비웠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할 때 아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끄는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였습니다. 물건들을 주변에 나누어 드릴 때 받는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 또한 기쁜 마음이 들었고, 물건들을 버릴 때에는 ‘나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비우니 마음이 홀가분하였습니다. 그러

던 중 지인의 인연으로 한 스님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그 스님께서 “주관적 견해를 버려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3번 반복하시며 이 말을 잊지 말고 반드시 명심하라는 듯 부드럽지만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벗어놓은 옷에 눈길이 갔습니다. 겨울이라 옷이 두꺼운 것도 있었지만 한아름 쌓여 있는 옷들이 마치 뱀이 벗어놓은 허물 같았습니다. 나의 견해도 이 옷 무더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의 마음을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나의 숨겨진 마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향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좋음으로 규정한 사람은 끌어당기고 나쁨으로 규정한 사람은 밀어내고 무시하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간혀 나의 마음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벗어놓은 옷 무더기, 나의 허물들이며 나의 주관적 견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소유했던 물건들을 버렸듯이, 주관적 견해를 버리고, 타인의 시선에 간혀 나를 바라보는 객의 마음을 버리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자 합니다.

입촉진언入廁眞言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 있네

탐진치 삼독도 이 같이 버려 한 순간의 죄악도 없게 하리라

“옴 하로 다야 사바하”

세정진언洗淨眞言

비우고 말함은 최상의 행복 꿈 같은 세상을 바로 보는 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청정한 저 국토에 어서 가소서

“옴 하나 마리제 사바하” 

자신만의 향이 나는 수행자가 되기를

해수 / 사미니과(1학년)



수계교육이 끝나기가 무섭게 설렘과 긴장감과 함께 운문사에 입학했습니다. 수계교육 때 했던 발원문처럼 ‘행’을 닦는 삶, 수행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저는 8명의 도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공간, 시간 속에서 살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지만 왜 어른 스님들께서 대중생활, 강원생활을 꼭 하라고 하셨는지 가슴 깊이 되새겨지는 2주간의 집중습 의기간이 지나갔습니다.



❁ 동업중생

이 도반에게서 보이는 걸림 있는 모습이 내 안의 모습일 수 있음을 되새기게 되고, 차서 순으로 다니며 ‘기다림, 있는 그대로 모습 인정하기, 다름 인정하기’ 위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도 시선은 내 안을 향하는 ‘알아차림’으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개인적으로 내 것만 챙기면 되었던 속세의 습을 버

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화합' 을 배우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속세에서 물들었던 습을 거슬러 새로운 습을 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지금 알려 주신 습의 내용대로만 잘 '행' 한다면 내게도 훈습될 수 있음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상반 스님들께 격려와 도움을 많이 받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 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 이 생에 만나기 어려웠을 불법의 인연과 그림자던 운문사 안에서의 생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인연들의 공덕과 간절함이 모여 이 자리, 이곳 운문사 안에서 만의와 장삼을 수하고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늘 잊지 않고 되새기겠습니다.

❖ 자신만의 향이 나는 사람, 마음에 단단한 심지

얼마 전 사리암 참배 후, 문수선원에서 매화꽃차를 주셔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매화꽃향이 온몸으로 퍼지며 스스로에게도 향이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도반들 각자에게도 다르게 수행하며 나는 자신만의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길 발원하며 4년 동안 각자의 수행에 있어 마음에도 단단한 심지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어른 스님들과 상반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운문사 안에서 앞에서 닦아놓으셨기에 저희들이 닦아놓은 지름길을 알려 주신 대로 '행' 한다면 앞으로의 수행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탄탄한 기본과 좋은 토양을 다져 4년 뒤에는 작은 새싹이라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경전을 항상 수지독송하고 항상 '하심下心' 하며 겸손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잘 관리하며 수행정진해 4년 후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이라는 부처님의 서원대로 '정법正法' 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





백천문화재단 탐방기

자비가 여는 복덕福德의 문

도선 / 대교과(4학년)

산중의 운문사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심에 위치한 경기도 과천의 “백천문화재단”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세상은 마치 새로운 빛으로 물든 듯,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잊고 있던 자유로운 숨결이 새로이 느껴지고, 하늘의 넓음과 거리의 소음은 어쩔지 반갑게 느껴진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던 운문사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살아 있는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면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감정과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보이는 하얀 사무실의 모습은 마치 빈 캔버스처럼, 무엇도 걸릴 것이 없는 공간 같았고 스님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무언으로 알 수 있었다.

백천문화재단은 2002년 고故 조명하 이사장님의 원력에 의해 설립되어, 승가대학 학인 스



님의 학업 증진비 지원, 승복 지원, 비구니 스님의 의료비 지원, 장학생 교재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장삼 지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인도 등의 도서관 건립 및 보건소 건립, 기술학교 건립, 식수 지원 활동, 불서 지원 및 전국 병원 소책자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재는 아드님 이신 조도성 사무국장님이 그 뜻을 이어 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재단 사무실에서 조도성 사무국장님과 유재곤 부장님, 박성빈 실장님을 뵈 수 있었다. 세 분의 평온한 인상을 보니 긴장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듯하였다.



● “재단의 설립 배경과, 지금의 구성이 궁금합니다.”

이 재단은 아버지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시며 “신이 계셔서 도와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재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역할이 씨를 심어 묘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묘목이 성목으로 자라나느냐는 다음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재단의 일은 저와 두 명의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보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시는 유재곤 부장님과 박성빈 실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님을 평생 곁에서 보필해 오신 하진업 이사님께서도 재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는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사장님께서 세운 재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일이든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단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시대에 맞추어 재단 사업도 변화가 있으신지요?”

시대 변화에 따라 불교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흥대 선원 등 젊은 스님들과 함

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과 승가 지원은 그 중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학 사업은 매년 스무 명의 학인 스님에게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구니 회와 의료비 지원, 환우 소책자 배포 등의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은 불교계 NGO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 도서관과 우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대 이사장님은 스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하셨고, 그 작은 선원에 해제비 지원과 어려운 비구니 스님 돕기였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진정한 나눔과 혜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뜻을 잃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나 기획 사업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인도 보건소 운영 시범 지원, 병원 법당 현대화 지원, 그리고 중립학교 교실을 명상실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마음을 돌보고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교에서 명상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복지에 관심 있는 스님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상 교실 운영과 교육 매뉴얼을 작성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운문사와 함께 진행 중인 대만 불교 교류 지원 사업과 서울의료원 병원 법당 현대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법당은 현재 좁고 불상만 있는 공간인데, 이를 밝고 열린 분위기로 바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서울의료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미얀마와 로터스 월드와 함께 준비 중인 식품 관련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사업의 방향성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법당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나면 사업의 확산은 스님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의 시범 사업은 모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이를 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잘하는 곳과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문사와 같이 진행 중인 대만 불교 교류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습니까?”

대만 불광산사에 갔을 때, 재가자도 출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도 강원
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삼 일 동안 새벽 예불에 참석했는데,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사람들과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든지 받아주는데, 운문사 주지 스님과 학감 스님 그리고 그곳 강원장 스님을 만나 이야
기를 나누고, 기숙사와 생활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선택을 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결심하는 사람이 80%라고 했습니다. 사실, 머리를 깎고 시
작하는 것이 큰 문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추어 많은 사람
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 불교와 대만 불교가 협력하여 함께 포교
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운문사 주지 스님도 대만에 다녀오면서 불광산사나 대만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면 좋
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대만에 가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대만에서도 한국 불교
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신도들이 많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 강원인 운문사를 시작으로, 점차 여러 강원과 교류를 이어가자
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문사 학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대만에서 자제공덕회와 불
광산사의 융성을 목격한 후, 운
문사 주지 스님께서 남기신 말
씀 중 “한 사람의 원력이 중요하
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
들이 운문사에 많이 나와주셨으
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한 시대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기획한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재단 일을 진행하면서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끌어갈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선대 이사장님께서 재단의 성격을 규정하시며 말씀하신 “불교”라는 부분과, 재단 내에 출가자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거나 특정 입장을 고수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속세에 있기 때문에 변화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작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든 다른 기회든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객관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잘 소화해내어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천문화재단”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숭고한 향기와도 같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와 보시의 빛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히 이 세상을 밝혀가고 있다. 재단의 모든 활동은 마치 고요한 물결처럼 넓고 깊게 퍼져 나가,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재단의 행보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들의 겸손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불교의 정신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 “백천문화재단”이 펼치는 이 고귀한 보시의 행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숭고한 재단의 뜻을 깊이 존경하며, 그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여정이 세상에 끝없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



문수보살



승목 / 사집과 (2학년)



내가 빛나는 별입니다

덕유 / 대교과(4학년)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덕유입니다.

저는 유학박람회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어’라는 주제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해외로 가십니까?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돌아보고 싶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혹은 다른 학생들도 다녀왔는데 나도 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학을 선택하기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유학의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집과 가족, 친구 등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뒤로 하고 유학을 간다면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유학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낯선 환경에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갓 상경한 학생들은 서울의 모든 것이 신기하듯이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은 그보다 더 큰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무게 또한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고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만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번역 혹은 통역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저의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K-열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인을 반겨주시는 시기이지만, 처음에는 아무 연고도 없이 학교 신청, 비자 문제, 현지에 적응하는 부분까지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는 힘이 든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개학을 한 후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목에 5층 높이에 있던 아주 큰 간판이 제가 지나간 후 바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친 이 없이 무사했습니다.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저의 손을 잡으시고 “나무아미타불,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 한 마디에 저는 대만에 온 후 처음으로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 스님께서서는 제게 『사십이장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는가?”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는 도를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서는 다시 다른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는가?”

“예,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도 도를 모르는구나.”

세 번째로 다른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는가?”

“예, 숨 한 번 쉬는 호흡시간에 있습니다.”

“장하다, 그대는 도를 바로 알았구나.”

낯선 이국의 땅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죽음이 코앞을 스쳐지나간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서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 설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니, 맹구우목의 비유처럼 귀한 불법을 만난 인연에 환희심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스스로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 무명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심여공화사心如工畫師 능화제세간能畫諸世間 오온실종생五蘊實從生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린다네.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 무엇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없다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불안과 짜증을 품고 있다면, 삶은 그러한 감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적으로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내 분노를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대신, 왜 나는 항상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 내가 과거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나요? 잠시 동안은 그것을 억누를 수 있다고 해도 눌러놓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예전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안전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 눌러 놓았던 감정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얼어 있는 그 미해결된 에너지가 녹아 표현되기 전까지, 그 이야기와 관련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두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게 하고 내가 남처럼 생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하신 것처럼 사람 목숨이 숨 한 번 쉬는 순간에 달려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고집할 것이며, 무엇에 얽매어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남보다는 온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찾아서 열심히 도달시켜주시고, 어깨에 손을 올려서 본인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한 번 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공을 만납니다

혜행 / 사집과(2학년)



삽화_2학년 덕우

아무런
경계가 없는
허공을 만납니다.

언제나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허공을 만납니다.

이 순간
그대 안에 숨쉬고 있는
그 허공을 만납니다.

이내
밝게 빛나는 그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



회주 스님,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진흙 속에 연꽃을 피워낼 치문반 스님들 환영합니다!

늘 봄처럼 새로워라

편집부



울력의 꽃은 역시 간식~

수목원의 봄은 화엄세상





61회 스님들 구족계 수계를 축하합니다
이제 어엿한 비구니로~



아만을 버리고 중생의 복전이 되는 시간
- 화엄반 자비탁발



흘날리는 벚꽃 속에서도 느껴지는 수행의 향기



젊은 불교, 젊은 문문인 - 코엑스 불교박람회 다녀왔어요



올해도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도록



꽃은 치문이 따고, 전은 사교가 굽고



3월 셋째 선일입니다.
 사숙님과 함께 편찮으신 곳 없이 잘 계신지요?
 저는 운문사에서 2주를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중년의 건강문제도 생각보다 잘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치문반 건강문제 관련
 배려는 수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대로 운문인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습의 훈련은 절도 있고 다른 생
 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 있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스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스님 말씀이 생각나는 40 여년 전에는 그 기상이 어땠을까 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습니
 다.
 세속에서 배운 공부와 지식이 차칫 잘못하면 부처님 말씀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
 다는 스님 말씀 명심하며 도반들, 상반 스님들, 가르쳐 주시는 강사 스님들의 지도와 가르
 침을 하심하여 수용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매순간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스님, 셋째 선일입니다.

사숙님과 함께 편찮으신 곳 없이 잘 계신지요?

저는 운문사에서 2주를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중년의 건강 문제도 생각보다 잘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바
 뿐 와중에도 치문반 건강문제 관련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대로 운문인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습의 훈련은 절도 있고 다른 생
 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 있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스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40여 년 전에는 그 기상이 어땠을까 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습니
 다.

세속에서 배운 공부와 지식이 차칫 잘못하면 부처님 말씀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
 다는 스님 말씀 명심하며 도반들, 상반 스님들, 가르쳐 주시는 강사 스님들의 지도와 가르
 침을 하심하여 수용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매순간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도반은 9명입니다. 대부분 연배차가 심하게는 나지 않아 일부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
 어 협조가 잘 되고 막내 스님과 차막내 스님 젊은 두 분도 연배보다 성숙한 인격이어서 백씨
 이면서 반장으로서의 생활도 무난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승가의 소그룹의 백씨와 반장소
 임은 사회에서의 대표나 리더와는 다른, 수행자로서 배워야 할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
 인 것 같습니다. 강원 치문반 첫 소임으로 백씨와 반장소임을 할 수 있어서 그 인연에 감사
 하며 화합과 자비를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3월 셋째 선일입니다.
 사숙님과 함께 편찮으신 곳 없이 잘 계신지요?
 저는 운문사에서 2주를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중년의 건강문제도 생각보다 잘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치문반 건강문제 관련
 배려는 수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대로 운문인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습의 훈련은 절도 있고 다른 생
 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 있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스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스님 말씀이 생각나는 40 여년 전에는 그 기상이 어땠을까 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습니
 다.
 세속에서 배운 공부와 지식이 차칫 잘못하면 부처님 말씀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
 다는 스님 말씀 명심하며 도반들, 상반 스님들, 가르쳐 주시는 강사 스님들의 지도와 가르
 침을 하심하여 수용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매순간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2주 집중습의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여 현재 저의 모습은 한 발짝 수행자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짧은 2주 간의 시간만에 성장을 보면 앞으로 4년의 배움과 수행자로서의 성장에 기대가 가는 마음이 봄날에 꽃과 같습니다, 스님.

강의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한자로 우리에게 전해진만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수지하고 전법하기 위해 한자 습득에도 열심을 기울이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스님과 사숙님과 몇 날 며칠 설레며 썩 강원 집을 신고 가지산 머리 눈덮인 풍경에 감탄하며 소풍 가듯 오던 강원 입학 방부일이 생각납니다.

좋고 행복한 추억으로 시작된 운문사 강원에서 배움은 그 끝도 좋고 훌륭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 가르치심대로 매순간 사띠·마음챙김을 잊지 않고 생활하며 부처님 말씀으로 청정하고 행복하고 반듯한 수행자로 4년 동안 부지런히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 주신 스님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사숙님께도 잘 보살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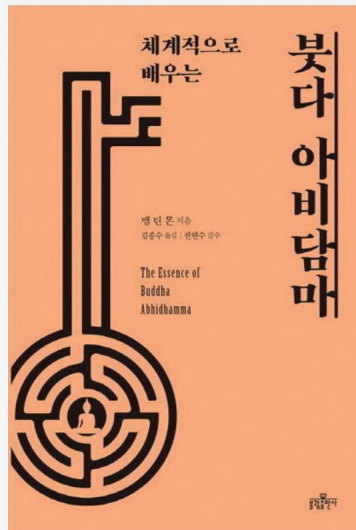
불기 2569년 3월 20일 선일 올림 🍵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를 읽고

혜석 / 대교과(4학년)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미얀마의 저명한 화학자이자 불교학자 맴틴몬 교수의 저작인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는 불교의 삼장 三藏 중 하나로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존재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마음의 작용, 감정, 인지 과정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인간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비담마와 아비담마의 주석서인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존재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재의 요소들을 마음(citta), 마음부수(cetasika), 물질(rupa), 열반(nibbana)으로 분류합니다. 이 책은 위에 나열한 순서대로 목차가 짜여 있으며 차근차근 궁극적 실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헤쳐 나가며 분석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그동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서 아비담마에 대한 지식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불분명하게 아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 전체적인 아비담마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최소 단위의 물질이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동안 마음은 17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매 17번의 마음 순간 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서 대상을 아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초 동안에도 수십억 번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강한 집중력 훈련을 통해 선정의 마음을 개발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미세한 마음을 포착하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과보의 마음으로 신체적으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과보의 마음으로 불쾌한 신체적 느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동안 일으키는 수많은 마음속에서 과연 나는 선한 마음의 과보인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지, 불선한 마음의 과보인 불유쾌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숙고한다면 비록 지금은 선정력이 없어 직접적으로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사냥꾼이 발자국을 통해 동물의 행방을 추적해 가듯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쾌하거나 불유쾌한 느낌을 통해 무의식중에 일으킨 마음의 속성이 선인지 불선인지를 뒤늦게나마 추적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육계 존재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는 심장 토대인데 무색계 존재들은 신체가 없는데도 어디에서 의식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무색계 존재는 심장 토대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의 오랜 의문이 해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업과 업이 이끄는 3계 안에서의 윤회와 어떤 존재가 죽음을 통해 다음 세상에 재생할 때 어떤 업의 법칙에 의해 다시 존재를 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위의 과보를 숙고하며 더욱 신중하고 선한 의도와 신구의 身口意 삼업을 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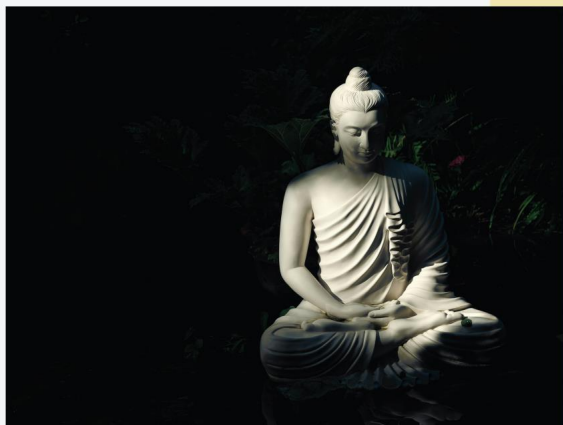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덕을 더 잘 지을 수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타인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위와 이 행

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업과 업의 과보를 아는 지혜와 함께’ 한 보시, 지계, 수행은 강력하고 수승한 선한 과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 혹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하는 마음부수를 외워서 머릿속에 유념하면 마음이 조금 더 선함에 머물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배후에 숨겨진 마음부수들의 작용을 얹으로써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의 과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 순간의 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비담마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덕을 쌓고, 선한 마음을 길러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음의 학문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며 불법에 환희심을 느꼈던 초심이 떠올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출가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여 궁극적 실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수행하여, 이 책에서 배운 지혜를 저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며 최종적으로는 책에서 묘사된 궁극적 실재를 직접 꿰뚫어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



신중기도를 회향하며

- 사집의 봄 -

도운 / 사집과(2학년)



처음 운문사에 들어와 신중기도와 소금묻기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낮설고 서툴러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준비된 후 기도만 참석했던 치문의 봄. 이제는 신중기도를 준비하며 이 기도 속에 많은 대중 스님들의 공덕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집반이 되었습니다. 상차림을 비롯하여 여러 준비를 하며 새삼 운문사에서 일 년 동안 성장한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성숙한 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힘도 커졌습니다. 대중과 화엄성중 정근을 할 때, 이 많은 대중들 중 누구 하나 티끌만한 잡념 없이 일심인 것을 느꼈고 더욱 환희심을 내어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각에서 홀로 집중하여 부처님을 염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번 기도로 대중의 힘을 실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신중기도 3일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신중기도 회향날, 화엄성중을 외며 도량 곳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일체 중생이 올해도 평안하기를 발원해봅니다.

저희 사집반은 이번 봄철을 ‘초발심을 다시 찾는 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출가를 마음먹던 순간, 계를 받던 순간, 운문사에 처음 와서 신중기도 했던 날들의 첫 발심을 다시금 되새기며, 해이해지고 풀어졌던 저희 마음을 다시 다잡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어른 스님 및 대중 스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중 스님들의 탁마로 나날이 향상일로 向上一路하는 사집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 변화를 대하는 지혜

모든 고통은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절제하고, 참고, 지혜로 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지구 곳곳을 불바다로 만드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이전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변화에 적응해가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서울 면적의 74%에 달하는 4만 5157ha를 불태우며 역대 산불 중 가장 큰 피해를 냈다. 앞서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 2025년 1월 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광역권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태평양 건너의 일이므로 ‘강 건너 불구경’이었을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빈번히 대규모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 북동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의 원인으로 해외 기후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4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있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 2009년 코펜하겐 협정을 비롯하여 2015년 파리 협정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지지한 2020년 1월의 과학 저널 바이오사이언스 기사에서는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밝혔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물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

해 섭씨 1.5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이른바 '기후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계가 '나름대로' 기후 변화에 신경을 써 왔으나 역부족이었다는 방증이다.

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후 변화를 아예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이 존재한다면 서로 탓을 하며 시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이기심과 공포심으로만 행동한다면 고통이 더욱 가중될 뿐이다.

그럼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고통은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절제하고, 참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소비하는 온갖 일회용품, 시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포장재,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온갖 과시적 소비와 무분별한 육류 소비 등을 멈추어야 한다. 과잉생산,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산업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장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지구 곳곳을 불바다로 만드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이전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변화에 적응해가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인간의 활동 양상도 변하고 있으며 기후도 변화한다. 우주 또한 성주괴 공成住壞空이니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우면 고통이 크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가 받는 고통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제행무상諸行無常 속에서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모든 생명체의 안락을 위해 애쓰고 또 애써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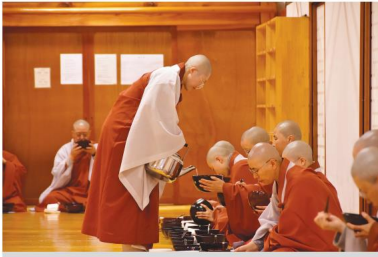
- 『자애경』 中 - 



▲ 신중기도 입재



▲ 치문반 문수선원 참배



▲ 범공양



▲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



▲ 선불장 집중 수행

- 3월 7일 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신중기도 입재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9일 3일 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소금 묻기가 있었습니다.
- 3월 17일 신입생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8일 치문반 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20일 전국 비구니 정기 총회에 은광 주지 스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서 1,0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3월 20일 ~ 28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율주 스님이 니존중아사리로, 영덕 학장 스님이 교수사로 참석하였습니다. 운문사 졸업생 스님 9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2일 역사문화관에서 회주 스님의 특별기획전시회가 열렸습니다.
- 3월 24일 화엄반 스님들이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으로 자비탁발을 다녀왔습니다. 탁발 금액은 산불피해지역에 기부하였습니다.
- 3월 28일 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9일 범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30일 학인 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물건들의 정리정돈 상태와 불필요한 물건들의 소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3월 31일 삼월 삼짇날 연례행사인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가 있었습니다.
- 4월 1일 ~ 4일 봉녕사에서 봉행된 제33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일진 율주 스님이 니존중아사리로, 영덕 학장 스님이 갈마위로 참석하였고, 사교반 11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3일 ~ 4일 마곡사에서 개최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에 어른 스님들과 대학원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교박람회에 은광 주지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7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9일 ~ 11일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마가 · 금강 · 월호) 주최로 <찾아가는 운문사 선불장 집중 수행>이 3일간 있었습니다.
- 4월 11일 저녁예불 후 차례범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범사 스님: 화엄반 덕유 스님, 사교반 진정 스님, 사집반 연담 스님)
- 4월 15일 충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범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6일 ~ 17일 비구니 교우회에 진광 강주 스님을 비롯한 강사 스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4월 21일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23일 봄철 종강일입니다.
- 4월 24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4월 25일 35일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광주 정안사 · 김명원 · 김성옥 · 김종미 · 류은주 · 무여거사 · 박금강
- 붓다선원 법등 · 윤희숙 · 이월례 · 이재영 · 이정숙 · 이창희 · 정해옥
- 조서영 · 조인자 · 최오현 · 최희영 · 하옥희 · 한미영 · 한옥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 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전사물佛殿四物

목어木魚



수중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울리는 목어

언제나 눈을 뜨고 사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늘 깨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여등약육연사성문汝等若欲捐捨聲聞
 수보살승修菩薩乘 입불지견入佛知見
 응당심관應當審觀 인지발심因地發心
 여과지각與果地覺 위동위이爲同爲異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땅히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깊이 관찰해 보아라.

- 『능엄경』 中 -